



관촉사 아랫마을 사암동.



대웅보전.



사하촌 가정집 마당에 모셔진 비로자나불.



‘은진미륵’으로 불리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35 반야산 관촉사

나를 내려 놓는 길

논산알리기 나선 ‘토박이’

충남문화관광해설사 유병숙

논산에는 13명의 해설사가 있다. 그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문화재를 지키러 나온다. 어떤 인연으로 해설사를 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유병숙 해설사(사진)는 고향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들려주었다.



“나는 논산에서 태어나서 논산에서 자랐는데 결혼해서 외지에 나가 살았지요. 5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서울에서 친구들이 내려오면 안내할 곳이 없었어요. ‘논산 사람이면 논산에 대해 알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건강대학교 문화관광해설사 과정을 신청했어요. 내성적인 성격인데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지요.”

해설사 3년 차인 그녀는 건강대와 청주대에 80시간 교육을 받고 해마다 40시간씩 보수 교육을 받는다. 그녀에게 역사공부를 하게 만든 것은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인 아이들이란다.

“엄마를 훌륭한 해설사로 만들기 위한인지 아이들이 역사놀이를 하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실력을 겨루다보면 반도 맞추지 못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모자라는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도서관 단골손님이 되었지요.”

해설사를 하면서부터 논산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녀에게 마음을 적시는 향기가 가득하다.

돌 솟아난다는 소문 들은 임금 “그자리에 부처님 모셔라” 주민 반대 교회 못들어와... “정부차원 각종 시설 갖춰야”

논산 들판에서 새가 잠깐 높이 나는 것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나즈막한 반야산 위에 관촉사가 앉아 있다. 심산유곡에 있는 절집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다. 사하촌 식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해탈문을 지나 반야교에 올라서니 수많은 계단이 놓여 있다. 숨을 할딱이며 오르는 내게 무겁게 지고 사는 세상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일러준다.

관촉사는 고려 광종 19년 장건됐다. 중국의 지안이라는 명승이 절에 세워진 석조 미륵상을 보고 ‘꽃불을 보는 것같이 미륵이 빛난다’ 하여 관촉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옛날 어른들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산에서 나물을 캐던 아주머니가 아이 우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바위가 솟아나더라. 아주머니는 집에 가서 사위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위는 나라 현감한테 이야기를 해 그 말이 듣고 돌아 광종귀에 들어갔다. 왕은 그 당시 걸승인 혜명 대사를 시켜서 부처님의 계시나 부처님을 세우라고 명을 내렸다. 혜명 대사는 자리는 좋는데 돌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연산의 화강암을 가져다가 미륵보살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 후 논산평야에는 석공들의 들쭈는 소리가 40여년이나 지속되었다.

혜명 대사는 조각을 마치고 석재를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며 표진강을 서성인데 두 동자승이 부처님놀이를 하고 있었다. 동자들은 석불 도막 셋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다음 밑 부분 도막을 놓고 그 도막에 모래를 쌓았다. 모래위로 가운데 부분을 굴러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모래를 쌓아놓고 머리 부분을 굴러 올려놓았다. 아주 쉽게 석불이 서는 것을 보고 혜명 대사는 그 지혜에 놀랐다. 대사는 동자승들이 불사를 도우려 온 문수보살의 화신이라 믿고 절 하고 일어났는데 동자승들은 사라지

고 없었다. 중생을 도와주는 문수보살은 지금도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지 모른다. 미륵불이 은진미륵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은진현에 있다하여 얻어진 이름이란단.

미륵보살은 반야성 별관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 대한 희망을 생각하며 세우지 않았나 싶다. 관촉사 아랫마을 사암동에서 유영식 통장을 만났다. 사하촌은 절집으로 통하는 문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관촉사를 감싸 안고 있다. 98가구 283명이 살고 있는 아담한 마을이다. 주로 절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며 산다. 겨울철이라 관광객 발길이 끊긴 탓인지 간판만 내걸어 놓고 장사를 하지 않는다. 마을 발전을 위한 통장님 생각을 물었다.

“마을과 관촉사가 연계하여 개발하면 모를까 우리마을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만 안의 민가들도 이주를 하지 못하고 있지요. 재정자립도가 반야해서 업무를 못 내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묶어 놓아서 개인적으로는 개발도 불가능합니다. 사하촌 전체를 이주시켜서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위탁시설이나 숙박시설을 갖춰 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날에는 절집에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경기가 좋았다고 했다. 아랫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절집으로 인해 먹고 살았는데 사진을 찍어 주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했다. 지금은 부어를 경유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단다. 산사 순례와 강경감시장에 들었다 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오래 머무르지 않아 장사는 되지 않는단다.

사하촌은 시의 지원을 받아 마을회관과 마을안길 포장을 깨끗하게 하여 단정하였다. 마을은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고려 때 주변에 넓은 표

진강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 오백년 묵은 나무와 그 당시 배를 묶어 두었던 바위가 있다. 탐정호가 생기면서 물길에 막혀 표진강 물길은 사라졌지만 강경과 공주로 연결되는 강가 나무터가 있어서 마을의 문화는 융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장님은 옛날 은진고을에서 가장 잘 사는 마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때 관촉사에는 마을에 가족을 두고 사는 대처승 나인창 주지스님이 있었다. 조계종에서 파견한 비구승과 대처승이 서로 절집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때 사하촌 사람들은 얻어맞기도 했단다.

결국 대처승이 밀려나고 조계종으로 편입되었다. 마을과 절집이 크게 연계를 가지고 살지는 않았지만 대처승이 머무는 때 불쌍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학교도 보내주고 구제를 많이 했단다. 그런 후덕함으로 사람을 보살피며 공덕이 쌓였을인지 마을사람들도 덩달아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부처님이 돌봐주어서 그런지 우리 마을에는 월남에 나가서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

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지요.”

사하촌 사람들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랫마을에 교회가 들어 왔을 법한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다. 배 바위 주변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고 반대해서 교회가 들어오지 못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가정집 마당에 충남유형문화재 제88호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관촉사보다 더 오래된 대운정사라는 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미륵불과 비로자나불이 마주보고 있다고 하여 어머니 불상이라고 한다. 추정하기로는 절집이 사라지고 땅이 개인에게 팔리면서 불상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하다. 원래 불상은 집 밖 텃밭에 있었는데 비가 와서 지반이 약해 쓰러지면서 마당에 모시게 되었다. 불상 앞 재단에는 정성스럽게 꽃불과 꽃 공양이 올려져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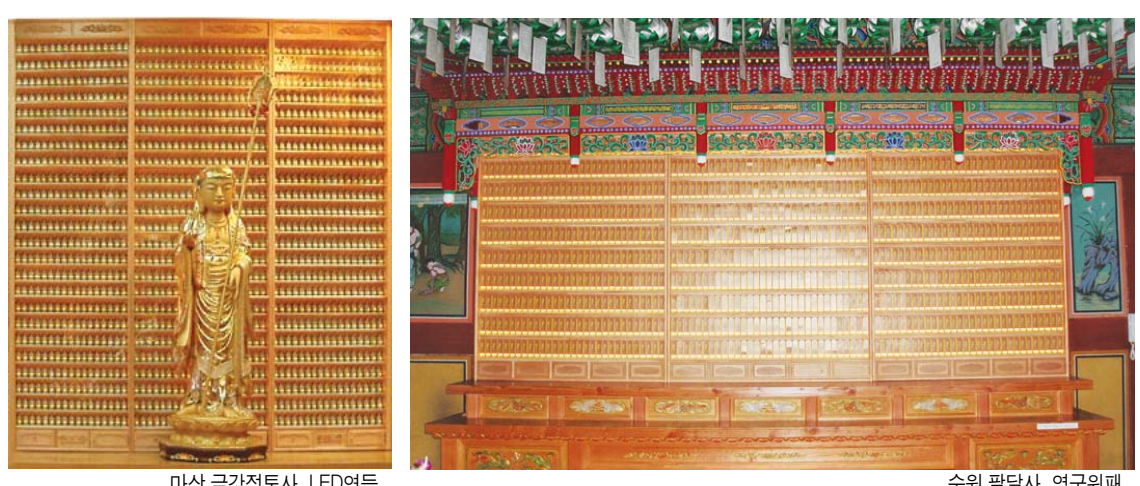
마을 사람들의 번뇌와 더불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상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논산=김상미(수필가·본지 객원기자)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전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잡등

※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